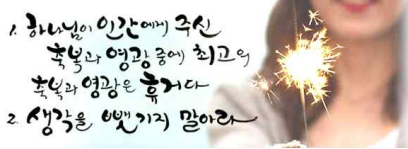


2015년 03월 22일 주일



출처 : 만남과 대화 god21.net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7절]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사랑과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니,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부흥강사 - 지난 한 주간 간단하게 정리해 주고 인사하고 말씀 시작)

◎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과 영광 중의 최고의 축복과 영광은 <휴거>다.

둘째, <생각>을 뺏기지 말아라. (입니다.)

◎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말씀해 줄 텐데요, 올해 <생명의 날>은 <성자 승천일>이었지요?

<성자 승천>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 있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며 <휴거>에 대해서 깨우쳐 주겠습니다.

<말씀 시작>

지난날 성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휴거>에 대한 말씀이 주일말씀으로도, 계시 말씀으로도 잘 안 나갈 것이다.”

성자는 특히 2009년부터 섭리사에 <재림과 휴거>에 대한 말씀을 쏟아 내시며 우리가 휴거되도록 엄청난 인봉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12년에는 아예

<휴거의 성령집회>를 한국의 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매주 해 주었고, 단상의 말씀을 통해 <휴거>에 대해 엄청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말씀마다 ‘휴거, 휴거’ 하며 숨넘어가듯 재촉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앞으로 <휴거 말씀>이 잘 안 나갈 것이다.” 했는데,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물론 꼭꼭 <휴거>에 대해 말씀했지만, 한창 모든 말씀마다 ‘휴거, 휴거’ 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전에는 “급하다. 서둘러라. 해가 저물어 간다. 휴거 열차가 떠나가기 직전이다.” 하며 숨넘어가는 소리를 하셨는데, 그 후부터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때는 성자가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실 때입니다. 성자가 떠나실 때 휴거된 영으로 같이 가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3월 16일 <생명의 날>, <성자 승천일>에 휴거된 영들이 성자와 함께 천국으로 떠나면서 혼인 잔치를 하니, 그리도 기쁘고 흥분되는 축제의 행사를 한 것입니다.

월명동 <성자 사랑의 집> 현장에 와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성자 승천일>은 기쁜 날이다. 고로 성자에게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자.” 한 대로 성자에게 영광을 돌릴수록 큰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성자 승천일>은 슬픈 날이 아니라 휴거된 영들이 성자와 함께 천국에 가서 혼인 잔치를 하는 날이니 그리도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도 당일 아침에

“준비됐든, 준비되지 않았든 모두 무대에 올라가서 성자에게 영광 돌려라.” 했던 것입니다. <끝>

정말 감사하게도 <성자의 계시>를 보니, 아직 휴거 100선, 200선이라도 특별히 <성자 승천일> 하루는 성자와 함께 황금성에서 잔치할 수 있도록 모두 초청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성자가 재촉하시고 서두르라고 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자는 우리를 오직 <구원의 길, 휴거의 길,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시고 <최고로 좋은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역시 신부는 신랑의 말을 들어야 만사형통이고, 기쁨과 보람과 만족이 늘 충만합니다.

(*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성자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마치 ‘차를 타고 가는 격’이라서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쉽게 휴거를 이루지만,

성자가 떠나시면 ‘걸어가는 격’이라서 자기 혼자서 해야 하니 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도우실 때 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재촉하고 서둘러서 성자의 도움을 받아 빨리 <휴거>를 이루어, 성자가 떠나실 때 같이 가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끝>

그때 그렇게 숨넘어가듯 말씀하셨어도 보통으로 들은 자들은 그때 ‘휴거의 잠’을 깨지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성자가 곧 떠나신다.” 말씀했기에 올해 수료생들까지는 “성자가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휴거 열차에 올라탔다.” 하며 <휴거>에 대한 성자의 긴급한 말씀을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휴거 역사>는 ‘성자의 육이 살아 있을 때’까지 진행되지만, <성자가 떠나시는 날>은

‘지구 역사상 한 번뿐’이니, 이때 휴거를 이루었으면 성자가 떠나실 때 같이 떠나는 영광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성자가 떠나실 때 <황금성>으로 같이 못 가고, 이제야 깨닫고 서두르는 자는 늦게라도 ‘휴거의 영’이 되는 대로 <황금성>에 가게 됩니다. <끝>

성자가 급한 소리를 하실 때는 꼭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은 절대 급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성자께서 급절하게 말씀하시며 재촉하실 때 보통으로 하고, 하찮은 것들을 끊지 못하고, 휴거에 잠을 자듯 하여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성자가 떠나실 때 같이 못 갔으니, 이제 뒤늦게라도 행하여 ‘자기 영’을 완성시켜 완성되는 대로 <황금성>에 가서 성자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휴거하려면, 그만큼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는 곧 ‘말씀’입니다.

휴거를 완성시키려면 그만큼 <휴거 말씀>이 나와야 하는데 성자가 떠나셨으니 이제는 가끔만 <휴거 말씀>을 하게 됩니다.

휴거될 자가 아쉽지, 성자는 천국에 가서도 ‘휴거된 영들’과 함께 <혼인 잔치>를 하셔야 되니 아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자가 떠나시기 전에 그리고 말씀해 주실 때, 그때가 <휴거될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했어야 합니다.

<최고의 기회의 때>에 못 한 자들은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 동안 계속해야 됩니다.

늦게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늦게 하는 만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됩니다.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대로 뭐든지 빨리하게 됩니다.

2013년, 2014년이 <휴거>를 이루기에 최고로 좋은 때였습니다. 올해 수료생들 정말 복이 있습니다. 선생도 지금 <휴거 말씀>을 더 해 주고 싶어도 휴거에 있어서 가장 급절한 때가 지났기에 안 해줍니다.

이제는 <전에 해 줬던 휴거 말씀>을 읽고 새기면서 하나하나 행하여 <휴거>를 이뤄야 됩니다. 그때 급절하게 외칠 때, 깊이 듣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랑이 “보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아라.” 할 때 나와서 맞아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성자는 떠나가실 때 휴거된 영들을 1차로 <천국>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들은 신부로서 신랑이 떠날 때 같이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자와 같이 못 간 영들은 앞으로 휴거되는 대로 <천국>에 오게 하십니다.

신랑이 먼저 떠나신 후에 신부가 뒤따라가는 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휴거되는지는 그동안 정말 많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휴거가 진행되는 역사>로 와서 <휴거 말씀>을 듣고 행하여 <성자와 분체>를 알고 믿고 사랑 일체 되어 살아야 휴거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는 ‘그 차원의 구원’밖에 이루지 못합니다.

이제 그동안 성자께서 그리고 심정 태우며 해 주었던 <이 시대 휴거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행하면 휴거됩니다.

오늘은 <오늘에 해당되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고로 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말씀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다 해 주었습니다. 그때 해 주었던 급절한 말씀으로 <휴거>를 이루기에 충~분합니다.

항상 ‘때’가 있습니다. 고로 항상 ‘때에 해당되는 말씀’을 급히 해야 됩니다.

겨울의 때가 지난 후에 여름이 되었는데 그때 눈 오기를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겨울의 때가 지났으니, 여름에는 기다려도 눈이 안 옵니다. 눈이 오는 것을 보려면, 다시 겨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때’가 돼야 <휴거의 말씀>을 해 주니, 그때 다시 듣고 행해야 됩니다.

어서 휴거되기 원하는 자들은 <그동안 해 주었던 휴거의 말씀>을

읽고, <그동안 해 주었던 휴거의 성령의 역사>를 다시 보면서 말씀대로 행하여 휴거를 이루기 바랍니다.

성자가 <휴거>에 대해 직접 말씀하실 때 제대로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은 자들은 글을 보고, 녹화해 놓은 것을 보고 행해야 됩니다.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서 늦게 온 자들도 <이미 해 준 말씀과 역사>를 보고서 행하도록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알고 맞은 자가 최고로 행복한 자입니다. 때를 놓치면, 후에는 꼭 후회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결심의 강도와 마음의 강도를 높이고 그동안 못 한 것들을 꼭 행하여 얻기 바랍니다!

<전환>

◎ 이제 오늘 성자가 해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선생이 새벽기도를 하면서 성자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어머니의 영이 휴거되게 해 주시기 위해 성자께서 그동안 지구 덩이만큼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 대가로 더욱더 성자를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 어머니와 제가 둘이 성자를 들어 손가마를 태우고 평생 감사하고 증거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휴거되도록 성자는 그에 해당되는 것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휴거되신 것입니다.

저는 겨우 아들로서 할 것을 해 줬을 뿐입니다. 또 하늘의 사명을 받았으니, 당연히 해 줄 것을 해 줬을 뿐입니다. 또 성자께서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보다 10년 더 살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딱 그 말씀대로 해 주셨습니다. 성자께서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동안 어머니의 영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육이 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대신 <기도>로서 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어머니의 영이 '휴거의 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휴거시켜 <황금성의 한 성>을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를 보면서 사랑하는 섭리인들도 고생해도 성자를 믿고 신앙을 지킨 보람이 있다고 하며 자신들도 '휴거의 희망'을 확신하게 되었고, 힘을 얻고 꼭 휴거되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성자는 “네 어머니 사연 이야기 끝도 없다. 내 이야기를 들어 보아라.” 하셨습니다.

내가 늘 말하고 또 말했지만, <신부로서 휴거된 자들>은 이 지구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다.

<이 역사로 와서 신부로 휴거된 영들>은 천국에서도 최고로 좋은 <황금성>에 간다.

그 자리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다.

세상의 왕이나 재벌이나 명예자나 권세자가 누리는 영광은 <휴거되어 황금성에 가는 영광>에 비하면 1억 분의 1도 안 된다.

이 세상에서 평생 영광을 받아도 <황금성에서 1분 동안 받는 영광>만큼도 안 된다.

세상은 세상에 속한 영광일 뿐이다.

(* 화면을 보면서, 계속해서 <성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4>

신부로서 휴거되어 가는 <황금성 천국>은 수백 가지의 실제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고로 그 값은 '지구 100억만 개'를 팔아도 못 만드는 값이다. 육체 30억 개를 가지고도 '영 한 명'을 못 만들듯이, 지구 70억 개를 팔아도 '황금성

천국의 값'이 안 된다.

이렇게 귀한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영광은 없다. 평생 수고해서 <휴거>만 된다면,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이다. (하셨습니다.) <끝>

사람이라면 누가 세상 욕심, 명예 욕심, 돈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인생을 바쳐 삼위를 위해 살고, 역사를 위해 살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행하며 휴거를 이루며 산 자들은 “행한 대로 정녕코 값아 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영광이 영원히 끝이 없도록 최고로 받게 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구 하나'를 살 수 있습니까? <황금성 천국>은 '지구 70억 개'를 팔아도 못 삽니다.

성자와 분체를 믿고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세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로 이 세상에서 '구원자'가 최고로 고난을 많이 받지만, 최고로 행복하고 영예로운 권세자입니다.

그다음 최고로 행복하고 영예로운 권세자가 있으니,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믿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를 통해 성삼위를 사랑하며 신부로서 살면서 휴거를 완성한 자들입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 성자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 다시 화면을 보면서 <성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5>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휴거된 영들에게 '천국의 기본 구조'는 다 주신다. 그러나 기본 터전 위에 '황금성의 자기 집과 정원'을 더 지으려면 자기가 그만큼 행해야 된다.

자기가 행하는 대로 '황금성의 자기 집과 정원'을 계속해서 더 지어 가게 된다. 이를 정녕코 알아라.

너희 육의 행위가 <휴거>를 좌우하고, 너희 육의 행위가 <황금성의 너희 집과 정원의 구조>를 좌우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끝>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 육으로 인한 유혹이 오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주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어도 <이 귀한 육신>을 가지고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성자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 화면을 보면서 <성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6>

<이 세상>은 '천국 가기 위한 삶의 터전'으로 창조했다.

<이 세상>은 '어머니의 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어머니의 태>는 생명이 잉태되어 지구 세상에 나와 살기 위해 성장하고 인체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모태>에서 '생명'을 만들지 못하고 유산되면, 생명은 그대로 죽어서 지구 세상을 구경도 못 해 보고 끝나듯,

<지구라는 태>에서 '자기 영'을 만들지 못하고 최고의 영광인 '휴거'를 이루지 못하면, 영이 사망으로 유산되어 '죽은 영'으로 끝나고 만다.

<구원과 휴거>는 '황금성 천국에 가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준다. <끝>

이것을 모르고 사는 자들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만 천국같이 누리다가 끝난다. 그 <영>은 영원히 '죽은 영'이 되어서 영원히 '사망'에 갇혀 살게 된다. 아는 것이 그리도 크다.

세상만사 모든 것들이 '아는 자'만 알고 행하여 얻고, '모르는 자'는 모르고 살다가 끝나지 않느냐. 하나라도 더 배우고 아는 자가 자기 육신의 운명, 영혼의 운명을 좋게 결정짓는다.

모두 <시대 복음>을 전해라. 그리함으로 <생명을 구원>하자.

〈생명 구원〉은 ‘자신의 휴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나 성자와 내 분체의 몸 역할을 하는 자’가 된다.

올해는 〈선교하는 해〉다.
자신만 구원받고 휴거되지 말고,
어서 전도하자.

2015년이 벌써 3개월이나 지났다.
나 성자를 사랑하는 힘으로 전도하자.
기뻐서 하자.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자.

올해가 시작되어 3개월 동안 전도한
자는 나 성자 옆에서 나와 사랑하며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다. 아직
전도하지 못한 자는 내 등 뒤에 서
있는 자다.

행하는 자는 ‘행한 것’을 가지고
나 성자와 사연을 나누고 대화하며,
대화를 나눈 모든 것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

고로 그것이 또 사연이 되어 계속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 3개월 동안
정말 전도하고자 했다면, 누구든지 한
명은 꼭 전도했을 것이다. 모두 ‘자기
공적’으로 살아간다. 〈천국〉도 ‘자기
공적대로 받고 누리는 삶’이다.

기도하여 나 성자와 교통하며
나를 먼저 사랑하는 ‘산 올라타기
삶’을 살자. 고로 그 힘으로 생명들을
전도하자.

너희 모두에게 ‘나를 먼저 사랑하는
힘’과 ‘생명들을 이 시대로 이끌어
오는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한다.

〈전환〉

◎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과 영광
중의 최고의 축복과 영광은
〈휴거〉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생각을 뺏기지 말아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똑같은 시간〉에 시장에 가고,
등산을 가고, 해외에 나가는 것을
동시에 하지 못합니다. 맞지요? 이
말을 완전히 깨달아야 다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말씀하려
합니다.

(* 〈성자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못 하니, 꼭 ‘한 가지 일’을 골라서
해야 된다. 〈하려고 하는 일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골라서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의
부도’가 나지 않고, 승리하고
성공한다.

(하고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끝〉

그 시간에 ‘최우선으로 할 일, 최고로
좋은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알려면,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이 잘
안 되니, 기도하여 성자에게 감동을 받고
느끼게 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같은 시간〉에 ‘급하게 할 일’이
두세 가지가 있으면 일단 기도하고
분별하여 ‘최고로 할 일’을 골라서
먼저 하고, 다른 한두 가지는
희생시켜야 됩니다.

가령, 〈1년에 딱 한 번 시장에서 각종
물건을 파는 날〉인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1년에 딱 한 번뿐인 섭리
행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때는 기도하여 성자에게 물어보고
‘자기 육과 영에게 연관된 일’
‘하나님과 성자와 연관된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가 꼭 사야 할 물건은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나, 가족이나, 옆의 사람을
시켜서 사 오게 하면 됩니다. 항상
‘같은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으면, 꼭 〈영적인 일〉 먼저
해야 됩니다.

만일 그 일이 〈육적인 일〉인데
누가 죽었거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그것은 ‘생명에 관한
일’이니 〈육적인 일〉 먼저 하되,
꼭 성자를 중심해서 해야 됩니다.

항상 어느 때든지
‘성자의 것,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양쪽 다 손해가 없습니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자〉가
‘영적인 자’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많은 일들 중에서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핵적인 일’이니,
그것 먼저 해야 됩니다. 〈핵〉을 뺏기면
안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사람이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의욕이 없어서 못 합니다. 육신의 최고
에너지는 ‘육의 힘’입니다. 그 힘은
‘정신’에서 나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8〉

〈정신적인 힘의 핵심〉은 ‘생각’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없으면,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생각〉에서
힘이 ‘강하게’ 오기도 하고 ‘약하게’
오기도 합니다. 〈생각〉이라는 힘을
다른 데 쓰면 힘이 소모되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 합니다.

고로 성자는
“〈생각〉을 다른 데로 뺏기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

잡다한 것이나 육적인 것에
〈생각의 힘〉을 쓰고 뺏기면,
‘힘’이 없고 ‘의욕’이 없어서 자기가
최고로 이뤄야 할 〈휴거〉를 중심하여
〈각종 일들〉을 그때그때 행하지
못합니다.

고로 ‘그때 행하여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사탄에게 당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 큰 손해입니다.

〈육신의 힘〉을 이성이나 각종 육적인
일들에 소모시키고 힘이 없어서
‘영적인 일’을 못 하면 그때 얻을 것을
얻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의 힘〉을 이성, 세상 오락, TV,
스마트폰, 컴퓨터, 자기가 좋아하고
중심하는 것에 소모시키면 그
시간에는 ‘육적’으로 〈생각의 힘〉을
뺏기니 〈축복의 기회〉를 줘도 ‘힘’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여 얻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잘 알겠지요?)

◎ 이 말씀은 〈핵심〉만 말씀하고
여기서 끝내니, 잊지 말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 이제 〈생각에 대한 근본의 말씀〉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생각〉을 뺏기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왜요?” 하고 물으니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나 성자는 항상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축복을 주고, 깨닫고
결심하게 하는데 〈생각〉을 빼앗겨
〈생각〉이 없으면 몰라서 못 받는다.
다른 것에 〈생각〉을 빼앗겨 넋이 나간
사람을 보아라.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들리겠느냐.” 하셨습니다.

(* 화면을 보면서, 계속해서
〈성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9〉

〈생각〉은 ‘몸을 행하게 하는 몸의
주인’이다. 나 성자가 ‘밭에 감춰진
보화’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부르고
있는데, 〈주인인 생각〉이 없으니 말해
주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된다. 〈끝〉

나 성자는 〈생각〉을 통해 축복도 주고,
예고도 해 주고, 앞날도 이야기해
주고, 휴거의 답도 주고, 사랑도 해
주고, 경고도 해 주는데 〈생각〉을 뺏겨
〈생각〉이 다른 것에 쏠려 있으면
주인 없는 집 같아서 심정 상해서
그냥 돌아온다.

고로 〈생각〉을 뺏기지 말아라.
〈생각〉을 뺏긴 것은
‘하나의 죽음’이니라. 〈생각〉을 뺏기면,
‘육체덩이만 있는 빈집’이니라.

나 성자가 도적같이 너에게 가서
그 순간 〈너의 생각〉을 작동시켜 줄
것을 주려 하는데, 〈너의 생각〉을
‘다른 데’ 뺏긴 상태이니 내가 줘도
길바닥에 놓고 가는 격이다. 그러면
사탄이 가져가니, 그때는 안 주고 그냥
가지고 돌아간다. (하셨습니다.)

생각을 뺏기지 말아라.
-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고로 기도할 때, 영계에 갈 때, 성자를
만날 때는 〈생각〉을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자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생각〉을 다른 데로 뺏기지
말고, 나 성자에게 집중해라.

앞으로 〈생각〉을 다른 데 안 뺏기고
내게 집중하면 내가 너희 각자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주겠다.

저마다 나 성자와 내 육을 얼마나
귀히 대하고 사랑하는지 보고,
너희 각자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자주 가는데,
너희는 이성과 각종 것들에 〈생각〉을
뺏겨 탄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신부〉가 되려면, 신랑 되는
〈성자와 분체〉를 늘 생각해라.
그래야 〈생각〉을 다른 것에
안 뺏긴다.”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그리고 성자는
‘뺏기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 화면을 보면서 〈성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10〉

“〈시간〉을 뺏기지 말아라.

인간은 〈시간〉에 매여서 행하며
살아가는데, 〈시간〉이 없으면, 나
성자가 무엇을 줘도 못 받는다.
고로 〈시간〉을 TV, 각종 오락, 세상
헛된 것, 이성애 절대 뺏기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끝〉

온종일 〈시간〉을 아껴 쓰기 바랍니다.
잡다한 것을 하는 데 시간만 안
뺏겨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 좋은 시간을, 한 번 가면 다시는
안 오는 귀한 시간을 〈성자〉를 위해서
쓰고, 〈환금 같은 일〉을 위해서 쓰고,
〈휴거〉를 위해서 쓰기 바랍니다.
이미 휴거된 자들도 〈휴거의 차원〉을
계속 높여야 됩니다.

〈300선 휴거〉는
‘차에 올라탄 격’이라고 했지요?
차에 올라탔으면, 그때부터는 달려야
됩니다. 이제 차를 타고 달리면서
400선, 500선, 600선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의 집〉도 더욱
갖춰지게 되고, 〈영〉도 더욱 찬란히
빛나게 됩니다.

아직 육신이 살아 있으니
〈휴거의 차원〉을 높이, 더 높이
올리려면 얼마든지 끝없이 할 수

있습니다. 고로 끊임없이, 꾸준히,
끝까지 하라고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하나 ‘절대 뺏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뭘까요?)
〈사랑〉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1〉

영원히 사랑할 대상인 ‘성자와 분체’를
두고 다른 것에 〈사랑〉을 뺏기면,
혼자가 되어 육도 혼도 영도 슬피
울게 됩니다. 결국 자기 홀로
자위행위적의 삶을 살면서 혼자
즐기다가 끝나게 되고, 쓸쓸함과
외로움으로 살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할 성자와 분체〉를
뺏기니, 〈세상〉을 쳐다보며 〈세상〉을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뺏기고
〈자기 할 일의 대상〉을 뺏기면, 자기
홀로 남습니다. 자기를 중심하면
뺏깁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끝〉

〈말씀 마무리〉

◎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과
영광 중의 최고의 축복과 영광은
〈휴거〉다.

둘째, 〈생각〉을 뺏기지 말아라.
〈시간〉을 뺏기지 말아라.
〈사랑〉을 뺏기지 말아라. (입니다.)

◎ 말씀을 주신 성자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자의 사랑과 평강을
빕니다.

◎ 이 말씀이 ‘성자와 주’가 되어
자기를 지키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행함으로 말씀의 주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